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816호

2002년 10월 15일(화)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

장예인 영화를 볼 수 있다 지난 10일
(목)부터 13일(일)까지 이트션센터에서
제 2회 장예인 영화제가 진행됐다. 13
일, 장예인 영화제에서 수화통역 자원봉사
를 한 용산배움터 수화통역자 교육부장
유시경분을 만나봤다.



서울배움터에서 어학생지원원의 인원이 무
신합니다. 무신된 이유는 뭘까요?



생리대가 있습니다.
너를 걸은 풍물에 알려주시지 마세요!

얼마 전 뉴스워크라는 주간 잡지에 노벨평
화상 로비에 대한 폭넓은 기사가 실렸습니
다. 규규아이 김 대통령을 위해 노벨평화
회관과 기숙사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가수 티미와 이현우가 출연해 학생
들의 많은 응원을 얻었고 용인배움터 '홀스' 을
만나 일본아와 원어노래도 듣고 일상의
독특한 인연인 교수·동역학연대학원 한노과 등
에 의해 받을 수 있는지 누구 많이 맞을
까요.



민리향의 저작자 중국어행기가 실렸습니
다. 민리향을 따라 중국으로 떠나 볼까요.

36회 이아이의 새 천년 첫 축제인 2002
부산국제영화제(14일~19일)의 열정
을 맴徊하는 청춘에게는 복지 지원금이
나 하여 색풀영화제를 즐기지만 남편의 항
구도시 부산에는 아름다운 초콜릿과 한
번도의 기회가 펼쳐졌다. 이어 코리나자
한미디 '스즈초'로 헤어지는 코리아, 다시
하나되는 그날까지 코리아 페어링

세민전특집

방학때부터 흘린 땀방울 값진 추억으로 거듭나길...

지난 3월,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저와 제 동기들은 선배님·교수님들로부터 세미나수학술을 축하하는 세미전에 대한 얘기를 들려왔어요. 지난 세미전에 참여한 선배님들은 “외교를 알리는 좋은 기회이고 좋은 일이다” 라고 우리들을 독려해 주셨죠. 어느덧 사이에서 흘러 24기회가 시작되며 전부터 우리는 세미전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태국인 노래방’은 여름방학 때부터 12명의 노래인원들이 전부 학교에 나와서 다양한 활동으로 복구하고 광복에 있

는 카페트 주위에 둘러앉아 수십명의 태국 노래들을 듣고 신곡을 했어요. 많은 상의와

토론 끝에 Sang Kong Han Jai 사랑의 목소리’, Sabai Sabai(조건전략), Mai Chai(아니아) 이렇게 세 곡으로 결정했어요. 세 곡 모두 사랑노래고요. 특히 Mai Chai는 한 연인

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고 부인하는 내용으로, “정말 정말 아니라고 하는데 강

한 부정으로 오버하여 사랑하는 사이가 맞음을 알려준다

는 재미있는 노래예요.

성과가 끝났지만 노

래연습에 들어가기

앞서 가사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

는 우선 인터넷에

서 태국노래를 다루

는 사이트를 찾아 가

사를 찾았어요. 사이트에

없는 노래는 다같이 머

리를 모아 태국어로 써있

는 가사집을 보며 한글

발음대로 적는 작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노래

와 비교해보니 수정작업

을 거치며 가사를 완성시

켰답니다.

각자 가사를 외우며 본

격적인 노래연습에 들어가,

우리는 매일 8교시가 끝난

후 빙 강의실을 떠나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대열을

맞추고 안무를 연습했어요. 잘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지만 서로 얘기해주며 고치는 과정을 되풀이했지요.

9월 11일(수)은 세미전의 첫 리허설 날이었어요. 자연재해 강당에서 진행된 리허설은 민 관광객들 앞에 두고 하는 것이라는 걱정 없이 무대에 올라갔지만 박상 유키나 긴장이 되어 재대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한 것 리허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연습시간은 자주 빠져 선배님들께 “이야 하는 거 열심히 해라”고 꾸중도 말았는데요. 리허설이 있은 후에는 세미전에 참석하셨던 00선배들이나 08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며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10월 9일(수) 당시 자연재해 강당에서 두 번째 리허설을 했고 첫 리허설 때보다는 훨씬 만족하면서 무대를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조금 작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 “수고 했다”고 우리에게 칭찬하는 말을 들으니 굉장히 뿌듯했지요.

세미전을 준비하면서 선배들 사이

도 더욱 돋보여져서 좋았고, 또 태국인 나에게 대화 전공이

갖는 관심이 아닌 더 많은 이해와 애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를 들어 태국사회의 우리

보다 활성 여성증권적인

것을 알았어요. 엄청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10월 9일(수) 당시 자연재해 강당에서 두 번째 리허설을 했고 첫 리허설 때보다는 훨씬 만족하면서 무대를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조금 작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 “수고 했다”고 우리에게 칭찬하는 말을 들으니 굉장히 뿌듯했지요.

세미전을 준비하면서 선배들 사이

도 더욱 돋보여져서 좋았고, 또 태국인 나에게 대화 전공이

갖는 관심이 아닌 더 많은 이해와 애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를 들어 태국사회의 우리

보다 활성 여성증권적인

것을 알았어요. 엄청 뿌듯했습니다.

세미전의 다양한 문화

와 축제의 한마디!

저와 같이 세미전의 현장속

으로 들어가보지 않으셨겠어요?

유인선
(동학·태국어 02)

▶ 세미전특집 4.5면

‘외대를 위하여’ 서울 정기총회 진행돼

지난 9일(수) 서울배움터 대문동장에서는 교수, 학생, 직원의 회합을 위한 ‘외대를 위하여’가 열렸다. 서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강길수(동광·베트남어 08)군과 박세령(사회·정계계 02)양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교직원 100여명 등 연인원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학내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기까지 충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꾸미기 준비였는데, 안병민총장이 몇몇 교수들과 함께 가수 노

시연의 대표곡 ‘만남’을 부르고 인 총장과 김재연 서율배움터 총학생회장, 이정철 노조지부장이 함께 노래부르는 등 즐거워 보기 들판 면도 연출됐다.

또한 안 총장은 행사 종 암연설에서 ‘내년 말쯤

3주제가 원하는 재단을 맞을 수 있을지’

이라고 밝혔고 용인과 서울배움터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는 가수 티미와 이현우가 출연해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 용인배움터 ‘홀스’ 을 만난 일본아와 원어노래도 듣고 일상의 독특한 인연인 교수·동역학연대학원 한노과 등도 그에 맞지 않은 실력으로 큰 박수를 받았



9월(수) 서울배움터 대문동장에서 열린 ‘외대를 위하여’ 행사에서 노래하는 3주제(원목부터 김재연 총학생회장, 이정철 노조지부장, 서율배움터 3주제) 모습

윤상필군, 수원구치소로 이송

조사과정중 폭행에 대해 항의… 보수대처 사과받아

지난 1일(화) 경찰에 연행된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윤상필(동유럽·한국어 05)군이 11일(금) 수원구치소로 이송, 구속됐다.

이적년대로 규정해 있는 한종군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지난 1일(화) 서울 삼일동에서 연

행된 윤상필군은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경 보안

수사대에서 10월 10일(금)까지 조사를 받았고 11일(금) 수원구치소로 이송됐다. 윤군은 ‘08년인권센터’와 송주현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앞일 1차 공판을 기록하고 있

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일(토) 송주현 변호사와 윤군의

어머니는 연행 직후 진행된 조사장에서 윤군을

폭행한 수사관을 만나 항의했다. 윤상필군

을 폭행한 수사관은 그 자리에서 사과·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지만 이에 윤군은 단식을 금내고

다음날인 6일(일)부터 조사에 응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윤상필군이 의장으로 있는 경기동부총

련은 지난 7월(월) 경기도경 보안수사대

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군의 수사 과정에

서의 폭행·수사에 대한 처벌 조치에 앞둔

상황에서 공안관원과 인권유권 금지 △윤군의

성명과 △반인권법 철폐 등을

제기해온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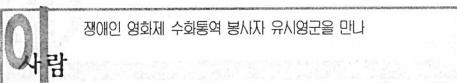
윤상필 총학생회장과 구속수사에 대한

상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받을

경찰에 밝혀졌다.

윤상필 총학생회장은 “온라인으로

‘전국 학생회장’이라는 명칭으로



장애인 영화제 수화동역 봉사자 유시영군을 만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글씨로 쓰다라고요!”라며 이를 향해 삼기한다. 영화가 시작에 조금은 어유가 생긴 그에게 봉사를 하며 느낀 점이 하나고 물었다. 유군은 “한국영화에 (장작장애인)를 위해 한글자막이 나오는 것이 생소한 면에서 재미있었어요. 수화동역이라는 광스러운 장애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가까이 이에 이렇게 많은 청각장애인이 있는 줄 몰랐네요”라고 전했다. 또, 봉사자 중에 대학생이 많을 줄 알았는데, 초·중·고생이 많아 놀랐다는 유군. 그는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달달한 수화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세계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 쉽지가 않다”며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수화로 영어를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수화 외에도 동아리에서 상남에 위치한 소방재난원 방문, 독거노인 방문도, 고등 학교 수학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군은 “장애인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비장애인만 영화를 볼 수 있고 장애인들은 거의 못 보니 비단 고마워야 한다. 영화제 출연에서 수화를 받아서 영상과 함께 영화제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다. 당시 출연에서 수화를 받은 후식과 함께 다른 봉사자들 보다 자신의 과정처럼 풍자신이 ‘장애인’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이번 행사에서 그에게 주된 일이다. 그는 “수화 뿐 아니라 하기도 부족해요. 약간의 ‘외사소통’ 정도”라고 웃으며 말한다.

수화를 중급만까지 수료한 그는 “내 수화 실력이 확연히 부족하다”는 남을 이해해 배우는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라고 말한다. 다른 봉사자들 보다 자신의 과정처럼 풍자신이 ‘장애인’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이번 행사에서 그에게 주된 일이다. 그는 “수화 뿐 아니라 하기도 부족해요. 약간의 ‘외사소통’ 정도”라고 웃으며 말한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유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종일 봉사활동으로 피곤한 텐데도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는다. 기사답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기자 뒤에서 유군은 이제 막 시작한 평택자 ‘YMCA아시아’를 보고오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티켓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일파 손으로 계속 말하고 있었다.

유군은 한기자 애피스트로 “농식수화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는데, 한글은 지갑을 절 어버려 능이인을 급하게 수화를 해서 알아

볼 수가 없었어요. 제작·진영·인권 수화와

‘현장’라는 수화를 했더니 한참에 지갑을 끌어냈다는 걸 지하(순으로) 쓰는

상지대 10년 만에 정의사 체제로, 외대는…

10일(목) 재판부, 상지대 임원 취임승인 신청거부 취소 승소 판결

98년 이후 임시아시아체제로 운영되어온 상지대하고 정의사체제로 전환 가능성이 커졌다. 상지대는 10일 ‘상지대학’이 교육인자 원원을 상대로 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태자)에게 낸 상지대학 임원(정의사) 위임승인처 거부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법원측은 “1심 재판에서 승소했기에 정의사체제로 전환에 따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이후 교육부가 환수하지 않을 경지 지난해 말 상지대가 신청한 명의 정의사전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 임시아시아가 되면서 이후 상지대학이 정의사체제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인정된다”며 “그밖에 교육부가 지난해 상지대학의 정의사를 선임 및 승인 요청

거부는 ‘법무부’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상지대학’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한다. 전 시장 김문기를 이해 담당자는 이유로 피고 보조 참가를 기각한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상지대학 법원인들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상지대학이 자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임시아시아가 파견되어 암 할 이유가 없는 것과 구 재인(상지대학 김문기)과 상지대학은 아무關係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지대학 법원인들은 “그뿐만 어떤 판결은 예의 주체였던 임시아시아대학원인의 국민대, 연남대, 대구대, 조선대 등에게도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지난 93년 김문기 전 시장이

학원 비리문제로 물러난 뒤 10여년간 교육부에서 파견된 관찰 임시아시아체제로 운영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임시 아시아 교육부로부터 상지대학은 매월 임시아시아로 신설하고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신청했으나 반기당한 뒤 이를 기각하겠다는 결과를 밝혔다. 한편 상지대학의 정의사는 김숙희(前 교육부장관), 이남주(YMCA 사무총장), 김진관(서울 교수), 이영수(교수신문사 발행인),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인숙(상지대학원 설립자·故한종록선생 미망인 원주 성애원 원장), 활동연(상지대학 대학장), 박상희(前 주 제2법률 교육회 목사), 김승오(환경 종교인 상임 신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사제공 - 유뉴스(unews.co.kr)



지난 10일(목) 서울배움터 노천극장에서는 여러대학 학생들의 노래실력을 겨루는 FBS 외대 가요제가 열렸다.

권정우 기자

이것이 략이다!!

영어말하기 대회

‘정거장’을 번역한 이은주씨 수상

대학원 총학생회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제1회 외인번역상’에서 이은주(중국어 박사)과 정(화)기수가 번역한 인문사회계열 수상작상(漢建)의 정거장(정류장)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1, 2차로 나뉘어 진행했는데, 저작 토포학 11개 작품이 각 언어로 전문번역과의 심사를 통해 5작품으로 추려진 후 최종심사에서 3작품이 결정됐다. 최종심사의 주관 기준은 원작을 얼마나 충실히 번역했는가”였으며 이씨의 작품은 이 충실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문학계열 우수작으로 신지수(사회 석사과정 4학기)씨가 번역한 도미시마 다케오의 ‘여지를 부르는 목소리’와 정희경(노어 석사 4

학기)씨가 번역한 빅토리아 토피비의 ‘하늘’ 정(화)기수가 번역한 인문사회계열 수상작상은 수준과 달리 선정되지 않았다.

한국국장 김동원(신한은행 박사과정 1학기)씨는 “문화간의 소통 역할을 하는 ‘번역’의 학문 의미가 점점 강조하고 있다. 번역학의 학문적 정체성 제고를 위해서도 이런 기회가 많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번역상 설립 취지를 밝혔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기뻐하는 이은주씨는 “기여상자에게 작품이 너무 좋았다. 외국문화를 전공하는 과정에서 번역에 흥미를 찾게 됐다”며 “중국의 좋은 작품을 계속해서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21일(목) 오후 5시 용인배움터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는 영어회화동아리 VEC 주제로 제 1회 영어말하기 대회가 열린다. 다른 학교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이 대회의 주제는 앞으로 3정도 정도 말한 외교분량이 요구된다.

학생회관 10층 강당에서 접수신청은 10월 28일(월)부터 11월 15일(금)까지 받는다. 행사당일 시상식과 함께 치러지는 시상식은 11월 10일(일), 2동 모방연, 3동 303호 등이다. 또한 참가자에게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

이어 관련 VEC동아리 회장 송미현(서유럽·영어 1학년)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이번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좋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문의는 주한 영국문화원 영국유학센터 02-3702-0691, www.EducationUK.or.kr

26일(토), 27일(일)

영국유학 박람회

오는 26일(토)부터 27일(일)까지 이틀간 서울 시청앞 프리퍄트홀 그랜드볼룸에서 주한 영국문화원이 주관하는 ‘영국유학 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서울 박람회에는 영국의 사립 초·중등학교 2개교와 81개 대학 등 총 84개 학교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의 특징은 영국의 학교 관광과 직접참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박람회 기간에는 영국의 영어 교육연수(ELT), 영국의 MPA, 영국의 원어 교육연수(TESOL) 등 UK 등의 설명회가 준비되어 구체적 정보도 제공한다.

문의는 주한 영국문화원 영국유학센터 02-3702-0691, www.EducationUK.or.kr

서울, 새 메뉴시판

서울배움터 학생상담 매뉴가 바뀌었다. 지난 14일(일)부터 학생상담은 전300원으로 배반형태의 매뉴를 사용한다.

이번 새 메뉴는 디저트와 함께 학생들이 많아지는 풍부한 영양성분을 갖춘 영양식이다.

이는 지난 7월 1일(월) 전남 진도에서 시작한 ‘우리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대회’의 미지개를 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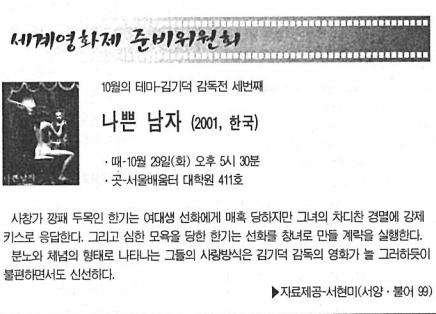
신보현 100인 100일 걷기 조직위 시무국장의 사회로 시작한 14명은 ‘우리쌀 걷기’ 100인 100일 걷기동원 운동’은 드리기’를 환영하는△

지난 13일(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주최로 ‘우리쌀지키기 민란공동체’가 열렸다. 김경호(김일성시화주)와 김동원(동원재봉) 등 6·15 공동선언연대 공동의 대장장이며 이정표(리더)와 청년학생들이 6·15 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개막식에서 시화주로 13일(일)에 김기봉(김기봉)과 죽국경기△세우·오리대와의 대회를 진행했으며 14일(월)에는 서울배움터 사무처장을 포함해 24명의 남북농민대회 참가자들이 참가해 14일(월) 평화식을 미리 고려하였다.

▶ 원고료 찾아가세요 -

- 대상: 혁보 글 쓴 사람
- 장소: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2층 신문사
- 연락처: 02-961-4152 / 031-330-4112



10월의 테마-김기자의 김동전 세번째

나쁜 남자 (2001, 한국)

· 때-10월 29일(화) 오후 5시 30분

· 곳-서울배움터 대학원 411호

사랑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각각은 그들의 사랑방식을 통해 각각의 사랑과 경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심한 모욕을 당한 학생들을 향한 학생들의 사랑방식을 살펴보았다.

▶ 지로재공·서현미(서양·불어 99)



용인배움터

구분	학 生				
요일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월 (14일)	대구예술단 (W1,400)	오정아리랑방 (W1,500)	소고기불고기 (W2,300)	돈육볶음밥 (W1,400)	전복국수 (W1,000)
화 (15일)	한국극단 (W1,400)	부대찌개 (W1,400)	비빔아리랑방 (W1,500)	닭갈비초밥 (W2,300)	소고기국밥 (W1,200)
수 (16일)	북극여행 (W1,500)	상추불고기비빔밥 (W1,500)	훠이카페렛 (W1,800)	된장찌개 (W2,300)	우동 (W1,000)
목 (17일)	설렁탕 (W1,500)	닭은반 (W1,600)	소고기찌개볶음밥 (W1,500)	돼지갈비찜 (W2,300)	스파게티 (W1,200)
금 (18일)	순두부찌개 (W1,300)	대추복음밥/스스 (W1,600)	갈비단 (W1,600)	초기구이 (W1,600)	산책비빔밥 (W1,000)

522 외대학보



4.5

2002년 10월 15일 816호

세민전 특집

지금, 이 무대가 나의 전부

| 세민전, 그들이 무대로 나서기까지

"자, 살살하지 말고 진짜 하는 것처럼 해봐!"

세계민족학술문화축전(세민전) 민속공연 1회가 시작한 지 반시간이 지난 12일(토) 오후 2시 40분, 양재교육문화회관 문화관 대극장 후문에선 인도어가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인도에서 직접 사내하는 전통의상을 끝에 입은 8명의 여학생들 대부분은 맨발로 연습하고 있다. "남세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김수진(미양)은 아무렇지도 않게 맨발로 연습을 했지만 안무를 맞추다가 실수를 때 터트리는 웃음을 길들이는 데에 긴장이 놓이었다.

"얼마나 멀리는지 아세요? 말 시키지 말아요"

기독교나 사람들이 많이 묵인 대기실은 환풍도 되지 않아 후덥지근하기 짝이 없다. 24기 클라우드 무빙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기실에 들어와 "청기리아와 나오세요"라고 크게 외쳤다.

청기리아와 과회장 전기홍(95)군은 손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흡수해 "파이팅 한 번 해보는 거 아니라 헤고 죽, 웃는다. '청기리아와 파이팅!' 대기실을 크게 울린 그들은 무대 바로 앞에서 대기하기 시작했다.

공연 중 독창을 하는 이아리(02)원은 "하게 떨려요. 실수하면 어찌죠?"하며 안절부절이다. 그녀가 "안무를 짤 때 의연조차이 안무 힘들었어요"라고 말하는 사이, 스튜디오 이정희(00)양에게 누군가가 계크을 보내왔다고 알려졌다. 이랑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저 얼마나 멀리든지 아세요? 말 시키지 말아요"하며 손사례를 친다.

3부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로리카리아가 분장을 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무대에서 자신이 두드림 볼을 쟁기는 날이후(02)군은 "학년인데 이런 큰 무대가 처음이라 좀 걱정되다"고 쓸쓸하게 웃는다.

남군은 지난 세민전에 참여했던 산배에게 밥을 새가버리를 배웠다. "같이 술을 마시고 학교에서 같이 복을 치던 새벽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남군은 전한다.

옆의 박하니(02)양은 "다른학교 친구에게 세민전자장을 하며 속아고 했다"며 거울을 다시 보아 옷에 무새를 다듬었다. 그녀를 포함해 6개의 아프리카리아와 참여자들이 입고 있는 전통의상은 선배들이 그들에게 물려준 것이다. 선배에게 볼을 배우고, 선배가 물려준 옷은 그들은 어떤 다음으로 무대에 오르게 될까.

설레임과 불안이 교차되는 그들

1회공연이 끝나도 그동안에 여유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어지는 2회 공연에서는 회보다 더욱 많은 사람과 함께 좌석은 어느새 꽉 차버렸다.

한국팀이 오프닝공연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무대 오른

편에는 독일어과 춤학회 '坦ண'이 대기하고 있었다. "무친장 떠려요" 백승우(02)군은 이어 그의 동기들이 "꽃풀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김나정"), "준비한 것을 보여준다는 게 기본 좋아요"("박형호")라며 연락과 말씀을 전한다. 신설과 불(火)이 교차되는 모습.

"글났다!" 한국팀 공연이 끝나고 잠시 영상이 나올 때 그들은 기하게 몸을 흔들거나 헛기침을 해서 긴 헛기침을 치우쳐 한다. "정선아, (여상) 구난단 쪽 물려"하며 누군가가 대급하게 말하기도 한다. 무대가 밝아지고, 음악이 흐르고, "자, 가세요!"하는 스텝의 말에 그들은 무대로 뛰어나간다.

오후 7시 40분, '분장실D'에는 뮤지컬아이들과 민속노래팀 10명의 여학생들이 풍물과 원을 고르고 앉아있다. "오늘 헛기침을 놀리지 말고 기분좋게 웃음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기범(02)양이 수습개 말한다.

육민회(01)장윤현, 한 노래팀 9명과 전부(02학번 새내기), '후배들이 말을 잘 들었나'는 질문에 "말을 거 시주면 잘 했다"고 그녀는 웃음을 터트렸다. 육민희양은 "내년에도 너희들처럼 착한 후배들을 만나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후배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까지 잊지 않는다.

2학기가 시작되고부터 매일매일 막차를 타는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엉겁결로 꿈과 꿈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눈빛은 결코 주눅들지 않았다.

▲ 드디어오지 않는 시간이야...

기장 많은 32명이 참여하고 비어문계까지 포함하는 어려와 학생들의 연합팀, 한국팀은 오프닝과 엔딩공연을 함께해서 세민전의 처음과 끝을 장식했다. "잘 나와야지" 미지막 연행공연을 앞두고, 소고를 들고 있는 경예주(자연 수학 02)양에게 한 선수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화장을 해주고 있는 너머로 전유리(동유럽·노예 01)양과 같은 과동기인 추승미양이 앉아있다.

"밸리기보드는 자랑스러워"는 전당에 이어 소고를 주는 추승미양이 "언제나 하루처럼 잘하면 된다"고 웃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살다"는 다음을 전한다.

한국팀의 마지막 공연은 귀불놀이, 탈춤, 대동관굿의 순서로 진행됐다. 춤꾼들이 뛰다가 갑자기 숨어있는 배길새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중간, 무대 옆에서는 스무 명 남짓한 학생들이 제작기 볼을 치고 징을 물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맛는 단연 대동관굿, 무대로 나가야 될 시 간이 다가오자 장구를 치고 있던 한 여학생이 상기된 표정으로 눈을 깜빡한다.

'나지막이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서 있는 이 무대가 나의 전부이다.'



끝났다!

세민전이 끝난 후 공연참가자들이 무대로 몰려와 환호하고 있다.

제작 사진부
세민전준비위원회

▲ 선빈아이과 청기팀이 텔고춤을 추고 있다

▲ 아립아이과의 밸리댄스
남자들이 불~갔다는 후문이...

www.ihufsan.com

주최

한국대학보 - 아이홀란

주제기획 | 대회 | 사회 | 군화 | 국체 | 미술

가을, 하위드전에게 혼남

'아마난' '발'로 분노한다는 것에 대하여

나는 종종하고, 말로만온만 가지를 하지만, 벌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움다하고 생각하는 것은
으로 되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들에게 그치울 물고, 함께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적

최대인 여러분!

www.ihufsan.com

'내가 만드는 인터넷 최대인보' 맞지 않으셨죠?

지금 들어가 보세요. 최대 소식이 꽃~악 있답니다.

그리고 최대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

우리과, 우리대학 이야기 등 마무마구 물려주세요.

이거 저는 최대인보 새 식구 개순회였습니다.

나는 일한 만큼 받는다. 나는 누구인가?

이승만(李承晚)의 치세논리, 유명무실한 '데려와의 전쟁'이 맴주어지길 바랍니다

연희숙의 문화일기]에 이렇듯 바늘에 펼린 나
마흔 줄은 일면서, 향에 베인 낭 선하는 줄은 모
르는 것일까? 우리는 이제 이런 유아적 자아중
심성을 뺏어나야 한다. 전인류의 호흡을 얻지 못
하는 이천연수(李天順)가 그의 치세논리로는 테리
리즘을 결코 뿌리내릴 수 없을 것이다. 유망무...
인대학



NN0553066

총애 출신생에 선제 참여임상 면접

2002년 10월 15일(토)부터 서로에게 둘러 앉았던 그들에 부여지 '한국대학보'와 함께 대

2002중국어과 자전거 원정동아리 만리행 여행기

오래된 앨범을 다시 펼치며…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내가 중국·평양·서북·집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그 해가 97년, 바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해였다.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에 동참해야 한다며, 나와 내 동생을 멀리 외로운 곳에 모았다. 난생 처음 차는 비행기 창 밖으로 흥얼의 첫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내가 중국에 왔을 때는 우리 중심이었던 이런 고등학생 단기적 사고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곳에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우리와는 다른 양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니와 똑같은 시장을 살아가고 있었다.

만리언성을 시작하기 위해 광주로 날아가는 동안 불현듯 차를 비행기 탓인 때가 생겼다. 어제는 그때의 사건이나를 외대에서 봄이 아니거나 하면 생겼을 듯했다. “우리는 사고를 넓게 가져야해. 우리가 당황한다고 생기는 것을 이 다른 나라에서는 아닐 수 있고, 우리는 학습에 의해 굳어진 상상력을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도 있어. 그것을 직관할 수 있을 때 기막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라고 나는 글을 와서글렸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부단한 관찰력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행을 통해 내가 가는 곳 구석구석을 자세히 관찰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달랬다.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광주의 모습, 과연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광주야야!…

광주 신제운(新濟雲)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바로 눈에 띄었던 것은 화장실이었다. 깨끗한 화장실에 자동수변기와 세면대. 하지만 변기에서 나온 물은 나의 몇에 뛰었으며, 수도꼭지의 물줄기는 너무나 험기 있었다. 웬지 발전했으면서도 남았다는 느낌은 광주 시내에서도 이어졌다. 멋진 건물들이 줄어서 있었지만 오래 전부터 개발되었던 곳이라 그런지 조조 낡은 듯한 모습이었다.

광주 시내에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육하고 싱당히 많다는 것이다. 자전거로 시내를 다니는 동안 유흥의 행렬이

걸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교통이 삼하게 정체되는 곳을 찾으려 힘들었다.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로 꼽히는 광주. 그것은 이러한 도시 시스템에도 나타나는 것 같다.

이제 남쪽 지방은 “리즈”라는 열매가 많이 낸다. 양귀비가 좋아서 리즈를 낸다는 행렬은 끝이지 않았다고 해서 유명한 이 달콤한 과일은 북쪽에서는 귀하지만 남쪽에는 많이 맵다. 사람의 시장을 살았다. 특히 국도 벽을 따라 늘어서 있는 노점상들의 과일은 주택과의 거리가わり로 딸리 상상할 물건들이 많이 난다. 우리에게는 딸리 상상한 물건들이 많아 좋았을 것이다.

도착 다음날, 우리는 자전거 구성을 위해 자전거 가게를 찾았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시계를 그리고, 자전거를 사시 세팅하는 데 하루가 지나갔다. 나는 자전거 가게 밖으로 나와 흙과 사내를 구경할 기회가 있는지를 유흥 계단 사이로 흐르는 깊은 물을 먹어보고 싶었다. 대원 11명이 해산물을 먹으려고 해 준다고 하였다. 한 사람 당 900원(우리 돈 13,5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다. 종국 우리는 해산물을 먹어보았다. 그리고 하였다. 한국화생들도 물고기 먹을지 말지 어려운 허리를 풀어보았다. 하지만 중국 학생들이 물고기를 먹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물고기 먹을지 말지 고민해보았다.

그리고 하였다. 우리는 물고기 먹을지 말지 고민해보았다.

한국외대 학생들 VS 북경대 학생들

우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친나와 있던 북경대 학생들은 이후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등고증으로 함께 한 친구들을 찾았다. 처음에는 친구한 명이 앞에 선풋 나오지 않았다. 한국인과도 처음 만나는 시사역사학과. 이들은 중국인이었다. 태어난 환경과 삶은 과정이 다르던 서로를 이해하는 힘은 법이다. 내가 여행하기 위해 우러러온 것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인 학생들과의 유대이다. 좋은 때는 잘 자내다가, 무엇인가 금지가 생기자면 겁을 먹을 수 없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행이 중단되는 시기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두려운 것은 서로 여행을 위해 억지로 표면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말이 달리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웠던 현실(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국복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번 여행에 부여된 또 하나의 숙제였다.

만리행은 힘든 여행이었다. 이 힘든 여행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하는 일에 의경대팀이 생각할 수 있고,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일 수도 있다. 또한 각자 자신을 끌어당기고 허물 속에 자신을 배려하지 못하는 팀

원들이 이숙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화의 씨앗을 이어나온 비로소 만리행이 완성되는 것이다. 만리행의 가치는 3,000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달려낸다

는 것 이외에 특별한 사람·소중한 친구를 만들어 가는 것에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에게 그저 터치태격하며 서로에게 길을 열기 시작하기 필요했다.

광주는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도시이다. 나는 공부의 일환으로서라도 꼭 광주 특색의 해산물을 먹어보고 싶었다. 대원 11명이 해산물을 먹으려고 해 준다고 하였다. 한 사람 당 900원(우리 돈 13,5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다. 종국 우리는 해산물을 먹어보았다. 그리고 하였다. 한국화생들도 물고기 먹을지 말지 고민해보았다.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나를 비싸서 저렴히 못 먹겠고 하였다.

그리고 하였다. 우리는 물고기 먹을지 말지 고민해보았다.

Mountain Rush

광주시내를 빛나니 얼마나 암울 지나지 않아 산이 하나 둘 보기 시작했다. 드디어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산길 양옆에 개간되어진 논에서 삼모자리의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지금 막 심은 배, 푸른 배, 추수를 기다리는 누런 배가 한 단위로 공존하고 있었다. 자연성을 달리 보면 모내기하는 모습과 추수하는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는 따뜻하고 습한 이곳 기후와 관련된 것으로 예로들어 남부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뒷받침해 주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산길 위를 걸어온 배들은 한 단위로 개간되어진 배였다. 단하산은 기이한 배들이 인상적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닮은 배와원들의 얼굴을 볼수록 하였다. 광주 이 산은 신혼부부들이 많아 찾았다고 한다. 우리는 배를 타고 계곡을 건넜는데, 이곳 이남원대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행생(여행생)과 가족들은 도래 기관 사이로 어느새 내리기 시작한 빛방울이 산에 비친 초록색 물결에 작은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두 번째 산은 광장산이었다. 광장산은 우리 대원들이 꼭 보고자 했던 코스 중 하나였다. 광장산은 모택동이 국민에게 폐한 공산당 무리들을 모아 대장정을 시작했던 곳이다. 그래서 현대 중국인들, 특히 공산당에 대한 이미 있는 것과 중 하나인 것이다. 우리는 광장산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바로 탐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는 체력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계단화장의 철재 모래석이 많고 많은 산으로서 광장산은 비단 정강을 선택했겠는가? 그렇지만 산이 깊고 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용담당(龍潭堂)이라는 곳에 갔는데, 여행들은 폭포가 인상적인 곳이었다. 우리는 하늘위로 높은 캐이블카의 유후를 뒤로하고 그 옆날 홍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이에 부리져라 산을 태고 있었다.

깊은 계곡 사이로 흥군들이 목포인 통곡 속



에도 들어서기 시작하여 적을 살피던 그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다. 또 인적 이 드문 - 이미 우리는 너무 깊이 들어온 듯 했는데 - 산·골짜기 속에서 있는 듯한 폭포를 보았을 때는 너나할 것 없이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춤처럼

온 들개단을 물과 계곡 속으로 뛰어들어 병풍처럼 드리워진 초록색 산과 눈부시게 맑은 폭포수, 그리고 세파란 하늘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우리는 공산당 지도자들이 거쳐왔던 곳과 혁명박물관을 견학했는데, 그곳에 걸려있던 ‘정강산 정신’에서 그 당시 공산당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 산은 중국 오악(五岳) 중 남악(南岳) 세속(聖俗)이다. 우리의 여행을 안내하겠다고 따라온나온 여관은 이 종원원이 입장장을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서 인적이 드문 절설로 인도했다. 이 한 세 시간쯤 걸었을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설을 탐험하는 것을 그냥 도로로나니 주택가에서 먼지로 가득 치운 것이다. 거기에서 떠나기까지 더 해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미끄럼이지도 빨리 질살게 되기 바라고 있는 이들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흥분을 기라 암암히 본다.

중원을 거스르며

하남성의 성도 징진에 도착하자 우리는 종친의 3대 도시 - 징주, 낙양, 개봉을 모두 관광하기로 결정했다. 징주에서는 노동자 봉기를 기념한 7·1집과 경국박물관을 관람했다. 낙양으로 가는 것은 중에는 소림사로 구경했다. 그곳의 사법무술장은 절과 탄성이 나올 정도로 멋진 소림사 자체는 생각보다 그리 규모가 아니었다. 하지만 은통을 빛은 듯한 건물과 대웅전, 칠층탑과 대웅전은 거대한 비석이 강한 인상으로 남았다.

낙양은 고려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과거의 번영을 파악하는 듯한 그림과 역사의 아름다움을 통증으로 느꼈다. 그곳에 슬리퍼를 신고 있다.

네 번째 산은 소산(韶山)이다. 이곳은 모택동이 어렸을 적에 자주 올라왔던 산이다. 광도성 비호현(北湖縣)에 위치한 소산은 단하산(丹霞山)이었다. 단하산은 기이한 배들이 인상적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닮은 배와원들의 얼굴을 볼수록 하였다. 광주 이 산은 신혼부부들이 많아 찾았다고 한다. 우리는 배를 타고 계곡을 건넜는데, 이곳 이남원대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행생(여행생)과 가족들은 도래 기관 사이로 어느새 내리기 시작한 빛방울이 산에 비친 초록색 물결에 작은 진동을 일으켰다. 계단화장의 철재 모래석이 많고 많은 산으로서 광장산은 비단 정강을 선택했겠는가? 그렇지만 산이 깊고 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용담당(龍潭堂)이라는 곳에 갔는데, 여행들은 폭포가 인상적인 곳이었다. 우리는 하늘위로 높은 캐이블카의 유후를 뒤로하고 그 옆날 홍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이에 부리져라 산을 태고 있었다.

깊은 계곡 사이로 흥군들이 목포인 통곡 속에서 있는 듯한 폭포를 보았을 때는 너나할 것 없이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춤처럼

Second Kiss
안기혁
(동학·중국 00)

당분간 출입금지- 지장은 개발중

장강을 건너 중국지방을 향해 가기 비포장도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발의 손길이 이제 막 미친 듯 여기저기 흙탕이를 퍼뜨리고 있었다. 이곳에 올 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계단을 올라온 듯한 철제 텐트를 구경했다. 이곳에 올 때는 시내버스를 떠나면서 텐트를 찾았는데, 불법 전용이었다. 운송수가 조금 더 친절히 다린 것은 전시를 동원하는 「국립」에 우리는 신당군부의 하자(假子) 그들의 모습인 중국인 해설해야 할 문제였다. 특히 시화시스템(여기서는 시내버스 전용으로 보여주듯)에 용인되는 사회(이나) 국민의식 - 가 먼저를 알을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내내버스를 타고 소진에서 이어 모로동 생활을 겪었다.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니 소년 모래밭이 나중에 전 중국을 다스릴 지도자가 될지 누가 알았을까.

개봉은 포장천으로 유명한 곳이다. 우리는 포장천이 집

무했던 곳을 견학했는데, 유리보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아울랄 정도로 입장료도 싸고, 사람도 봄비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처음 뽑는 대통령”

2002 대통령선거,
그가 아세요?
이번 대통령은, 우리손으로 처음 뽑는 대통령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 맘에 드는 대통령 좀 뽑아보자구요.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 원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어요?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보고,
대통령이란 대통령, 우리손으로 뽑아봅시다!

새글을 읽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